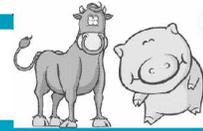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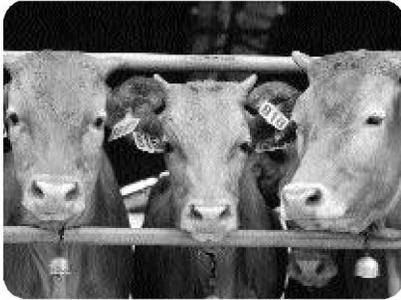


# 소· 돼지 가격전망



## 소

### 9~11월 한우 산지가격 전년대비 하락 전망



2006년 6월 한육우 사육두수는 195만9천두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3천두 증가하였으며,

전년에 비해서는 20만2천두 증가하였다. 이 중 한우는 178만3천두, 육우는 17만7천두로 한육우 중 육우는 9.0%를 차지하였다. 8월말까지 모든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브루셀라 표본검사가 실시됨에 따라 발병이 확인되는 소의 살처분과 동거우의 도축은 하반기 사육두수와 2007년 상반기 송아지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 6~8월 송아지 생산두수는 19만7천두, 도축두수는 13만5천두로 예상되어 한육우 사육두수는 2006년 9월 202만1천두, 9월 199만6천두로 전망된다. 2006년 하반기에 실시중인 브루셀라 감염의심우의 도살처분으로 인해 한우 암소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한우 수소의 경우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0월로 예상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도축두수증가로 공급이 늘어 한우 가격의 계절적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11월 한우 암소 산지가격은 520~550만원대(600kg 기준, 전년동기대비 8.4% 하락), 수소 450~470만원대(10.8% 하락), 수송아지 가격은 210~230만원대(10.2% 하락)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다시 연기될 경우 한우 산지가격은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다.

## 돼지

### 9~11월 성돈 산지가격 19~21만원으로 전망

고돈가가 지속되면서 올해 3, 6월 평균 모돈수가 4.5% 증가하였지만 폐사율이 지난해보다 높아 사육두수는 크게 증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7월 폐사율은 전년 동기간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9월 사육두수는 923만6천두로 지난해 9월보다 2.7% 증가하고 12월 사육두수는 916만8천두로 지난해 12월보다 2.3%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의 70%가 불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수입이 재개되더라도 소비자의 87%가 돼지고기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응답하였다.

올해 10~11월에 출하되는 2개월령 미만 두수는 3.4% 증가하였고, 5월부터 젖돼지 사료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9~11월 출하두수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하두수 증가와 더불어, 9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가 확정되면 10월에는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이며 9~11월 성돈 산지가격은 지난해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9~11월 성돈(100kg) 산지가격은 19~2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 하락할 전망이다.

출하두수 증가와 더불어,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로 반입되는 10월 한때 산지가격은 생산비(17만4천원) 이하에서 형성될 수도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제공>

